

출산 전 양육비혼모 삶의 경험

Living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s before Childbirth

이정실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Jeoung-Sil Lee(cross9495-@never.com)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비혼모가 되기 전 삶과 출산 전 양육비혼모 삶의 경험에 대하여 구조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함이다. 비혼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개별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Cola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상처로 얼룩진 시절' 주제모음은 비혼모가 되기 전 어린 시절 단절된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의 해체로 인하여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보호받지 못한 삶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위태로운 일상' 주제모음은 비혼모들의 이른 학업중단과 가출은 위태로운 생활로 이어졌다. 또한 무분별한 성문화와 낮은 성인식, 태도는 성을 일찍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혹스러운 임신사실' 주제모음은 비혼부의 피임 거부와 비혼모의 부정확한 피임지식과 피임방법 사용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주제모음 '힘들게 결정한 출산' 은 임신사실을 너무 늦게 인지하여 어쩔 수 없는 출산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 낙태를 거부하고 출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혼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 할 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임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성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비혼모 | 삶 | 출산 | 질적 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i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essence of the living experiences for unmarried mothers before childbirth and before pregnancy. As results, the theme 'days stained with wounds' reveals the living experience that they were abandoned or not protected by parents due to broken family relationships and function. In the theme 'daily life at stake', to drop out of school and running away from home led them to precarious life. And also they were early exposed to sexual intercourse due to indiscriminate sexual culture and poor sex awareness. The theme 'embarrassing pregnancy' shows that unmarried mothers got pregnant caused by their partners' refusal to practice contraception, their incorrect knowledge of the contraception, and the use of incorrect contraceptive methods. In the final theme 'childbirth decided on with difficulty', even if unmarried mothers had no choice in childbirth because they noticed their pregnancy too late, they rejected abortion and decided to give birth as they realize preciousness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sex education to provide accurate contraceptive knowledge and methods for male, as well as strengthening sex education for unmarried mothers was discussed.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 keyword : | Unmarried Mothers | Delivery | Live | Qualitative Research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이는 결혼을 당연히 하여 자녀 출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1].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2], 비혼모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혼모 용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비혼모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비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양육비혼모란 비혼모 중 아이를 양육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경우와 양육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결혼의 지연과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독신 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선정적인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보급은 성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핵가족화와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혼전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더욱 최근 들어 비혼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비혼모가 증가하고 있다[3]. 비혼모는 그 특성상 쉽게 노출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는 어렵지만 요보호 아동현황보고를 보면 1990년 2,369명에서 2004년 4,004명으로 증가하다 2013년 1,53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음으로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비혼모의 수는 23,936명이며, 비혼모의 자녀수는 28,234명으로 나타났다[4].

임신 연령이 낮은 청소년기 비혼모의 임신은 태아의 자궁 내 성장지연, 태아곤란, 자궁 내 사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고위험에 속하고[5], 또한 비혼모들은 갑작스런 임신으로 혼란과 불안, 두려움 등을 경험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6] 특히 우울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7] 비혼모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주택 및 환경 조건이 현저히 떨어져 비혼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8]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비혼모로 야기되는 문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신체적 건강문제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취업문제, 아이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입양되었을 경우에도 자아정체감의 상실, 소외감, 문화적 갈등,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한 비행 등 또 다른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혼모의 발생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혼모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 비혼모의 실태파악과 비혼모의 특성과 발생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10대 비혼모의 증가로 청소년 비혼모의 임신과 분만경험의 질적 연구와 청소년의 학습권에 관련된 연구, 임신과 관련된 슬픔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대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사회구조적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혼모 발생은 개인적으로 가출과 어려서의 성폭행 경험과 성지식과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며, 가정적으로 구조적 결손가정,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비혼모 발생 가능성이 높다[9]. 한편 경제적 궁핍이 직접적으로 비혼모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함으로써 열악한 직업에 조사하거나 유흥업이나 서비스업 등 윤락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어 비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이 비혼모 발생원인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에 이루어진 양적연구들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낙인과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있는 사회 인식 속에서 비혼모의 특성상 쉽게 노출하지 않고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감정이나 생각 등을 솔직하게 외부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비혼모가 되기 전 삶과 임신·출산경험과정을 그들이 경험하는 구조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여 비혼모 발생요인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비혼모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미혼모는 결혼한 여성이 독신과부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으로 청탁 받은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주에 속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지만 출산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보면 이 여성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하고 혼자 키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거할 수도 있다. 후자인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모이다[2].

외국에서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한 부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등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들은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라 칭하고 있다[13]. 미국의 경우 미혼으로 임신했을 때 대부분이 아기의 양육을 선택하고 있어, 미혼모라는 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독신모(single mother)로 칭하고 10대 미혼모인 경우는 특별히 'young single mother' 또는 'teen mother' 로 분리하여 칭하고 있다[14].

2. 비혼모의 현황

우리사회의 가족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독신 가족,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합법적인 형태의 가족구성을 이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회구성원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기

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혼모는 그 특성상 쉽게 노출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는 어렵지만 요보호아동현황보고를 보면 비혼모 아동 수는 2000년에는 30.9%에서 2011년 33.6%로 최고조에 이르다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6%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한 부모 가족 실태를 보면 2006년 1,425,590명, 2009년 1,550,872명, 2013년 1,714,419명, 2014년 1,749,969명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15].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비혼모의 수는 23,936명이며, 비혼모의 자녀 수는 28,234명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면 2015년 비혼모 수가 총 24,487명으로 나타났으며, 30-34세 4,048명, 35-39세 4,761명으로 비혼모의 연령이 30세-39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모자보호시설 입, 퇴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말 현재 41개 모자보호시설에 716세대 1,829명이 생활. 시설 수는 2002년 39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한 41개소로 현재까지 10년간(2006년~2015년) 변동이 없다[16].

3. 선행연구

비혼모의 발생요인 중 개인적 요인으로 가출과 어려서의 성폭행 경험은 비혼모가 되는 요인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성이나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요인으로는 구조적 결손 가정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비혼모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청소년 비혼모 및 또래집단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비혼모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윤미현과 이재연[17]의 연구에서는 10대 비혼모의 특성으로 정상가정출신이고, 저소득출신이지만, 중류이상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1/3이 중학교종퇴 및 졸업, 즉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처음 만난 대상자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첫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성폭행, 성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연[18]의 연구에서는 비혼모의 발생요인으로 가족 구조·기능의 결핍, 피임관계와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낙태 수술비용을 구하지 못해 출산을 한 경우, 생명의 존엄성으로 차마 낙태를 하지 못하여 출산을 한 경우가 비혼모 발생을 높일 수 있으며, 비혼부와 결별, 사별, 그리고 비혼부의 책임회피로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여 입양 혹은 양육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혼모 발생의 사회적 측면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다양한 문화의 교류는 전통사회가 지켜왔던 성 의식과 성 도덕마저도 변화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성 의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아울러 자유로운 이성교제의 기회가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원조교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19]. 이처럼 개방화되고 성적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절제된 생활이 힘들게 된 사회분위기도 비혼모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20]. 이와 같이 비혼모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가족 간의 대화부족과 이해부족으로 가족기능결핍,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상가정출신과 중류이상 가정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가출, 어려서의 성 폭행 경험을 볼 수 있으며, 성이나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집단의 개방적인 성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비혼모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혼모의 양육과 입양 결정 과정의 경험은 임신을 알게 된 시기가 빠를수록, 정서적 지지와 복지서비스 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21],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비혼모들의 양육경험을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과정’,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함’, ‘어머니로서의 삶이 버거움’, ‘자녀로 인해 알게 된 어머니로서의 삶’, ‘현실적인 문제가 어머니로서의 삶을 어렵게 함’ 등의 5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고, 삶의 행복을 주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단해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22].

성정현과 김희주[23]의 연구에서는 양육비혼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자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혼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아이의 교육, 건강 문제, 사회경제적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비혼모의 발생원인은 개인적 성격, 가족의 구조기능의 문제, 경제적 인 등 다양하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며 비혼모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보듯이 비혼모 발생요인이 개인, 가정,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설명 될 수 없으며,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지 못한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비혼모들의 심리적 경험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개인의 고유성과 주관성을 중시하며 생생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혼모가 되기 전 삶을 포함한 임신·출산 경험을 심층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구조와 본질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비혼모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비혼모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혼모의 성장과정과 비혼모가 되기 전 삶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지역과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비혼모자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비혼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질문으로 “출산 전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요?”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총 10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20세 이상의 양육 비혼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는 본

연구자가 비혼모센터에서 주1회 산전·산후관련 교육봉사를 통해 알게 된 비혼모 중 2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2명, 비혼모센터 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명, 비혼모의 소개로 2차 시설에 생활하는 1명, 또한 다른 비혼모센터의 관계자의 소개로 6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과 녹취를 동의한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면담은 1-2회 실시하였다. 1회 면담 시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면담 동안 정보제공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메모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필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H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HYI-16-135-2)과 비혼모센터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면담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언제든지 면담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다.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과 연구가 끝난 후 면담 내용과 녹음된 자료 파일이 폐기 처분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11]의 네 가지 요소인 진실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방청성(audit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의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자료수집부터 분석, 결과 해석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정보제공자에게 면담 기록내용과 분석결과가 정보제공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자료 수집을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 3인에게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관해 평가를 받아 수정작업을 거쳐 연구의 방청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 중 선 이해를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정보제공자가 이야기 기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며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Colaizzi[12]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비혼모의 삶의 경험”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이다.

표 1.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징

번호	연령	학력	비혼모			비혼부와 동거상태	가족
			음주	흡연	유산		
1	23세	중졸	+	+	-	+	이혼 후 부재혼, 모재혼
2	38세	대졸	-	-	-	-	기혼
3	36세	고 자퇴	+	+	+	-	부사망, 모재혼
4	32세	고졸	-	-	-	-	부사망, 모재혼
5	28세	중 중퇴	+	+	+	+	부가출, 모재혼
6	23세	고 중퇴	+	+	-	-	별거 후, 이혼
7	22세	중졸	+	+	-	+	이혼
8	28세	대 중퇴	+	+	+	-	별거
9	22세	중졸	+	+	-	+	이혼
10	21세	고졸	-	-	-	-	기혼

IV. 연구결과

출산 전 양육비혼모 삶의 연구결과 정보제공자의 연령 분포는 21세-38세로 평균연령 27.3세, 출산 시 평균 연령 25.4세, 출산 시 연령대는 10대 1명, 20대 6명, 30대 3명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중퇴 1명, 중학교 졸업 3명, 고등학교 중퇴 2명, 고등학교 졸업 2명, 대학교 중퇴 1명, 대학교 졸업 1명이었으며 [표 1], 네 가지의 주제모음과 19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네 가지의 주제모음은 ‘상처로 얼룩진 시절’, ‘위태로운 일상’, ‘당혹스러운 임신사실’, ‘힘들게 결정한 출산’으로 경험되었다.

1. 상처로 얼룩진 시절

정보제공자들은 상처로 얼룩진 시절을 보내는 것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음’, ‘학대를 경험함’, ‘학업중단’, ‘가족과의 단절’, ‘부적절한 보호’의 주제가 확인되었다.

1.1 부모에게 버림받음

정보제공자들은 부모의 오랜 별거, 이혼, 이혼 후 각각 재혼으로 홀로 남겨진 아이는 친척집에서 생활하거나 새어머니와 생활하기도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이러한 현실이 놀랍고 당황스러우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바로 재혼을 해서 저는 엄마, 아빠얼굴을 몰라요.”(정보제공자 4)

1.2 학대를 경험함

정보제공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다. 이혼한 부모에게 무관심, 폭언과 주기적인 매를 맞았으며, 친인척,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생활은 정보제공자들을 더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더 큰 좌절감과 더 심한 반항심을 만들게 되었다. 힘들고 지칠 때 안식처가 되어주고 편안함을 주어야 할 가정이 건널 수 없는 곳이 되어 가출을 생각했다. 이 시기에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며, 이런 현실이 짜증나고, 주눅 들고, 원망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아빠가 술만 먹으면 저를 찾아와서 손발로 때렸죠. 많이 맞았어요. 초 6때부터 맞았어요. 손 날아오고, 발로차고, 머리 잡아당기고...”(정보제공자7)

“16살 때인가? 사촌오빠한테 성 폭행을 당했던 거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정보제공자5)

1.3 학업중단

정보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가정생활이 점점 힘들어 지고 학교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학교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쉽게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 학업중단은 아르바이트로 쉽게 용돈을 벌수가 있었으며 또래 친구와 생활하며 가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공장에 들어갔는데 성폭행 당해 임신했어요.”(정보제공자7)

1.4 부적절한 보호

부모의 이혼, 재혼, 사별 등 가족기능파괴 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낮은 세입자와의 어색한 삶의 시

작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으며, 양육을 맡게 된 친척의 지나친 간섭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제된 생활을 하였다.

“고모는 공부만 하라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정보제공자5)

2. 위태로운 일상

정보제공자들은 가출한 후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가출 결행’, ‘가족 아닌 가족인 듯한 삶’, ‘내면을 포함함’, ‘비행을 일삼음’, ‘가족과의 단절’의 주제가 확인 되었다.

2.1 가출 결행

정보제공자들은 가정에서의 무관심, 냉대, 억압,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결심하였다.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뿐이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잠시나마 해방감과 자유를 즐기며 생활하였다. 또래친구와 만나 술, 담배를 배우며 쉽게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없어도 쉽게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을 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알게 되었다.

“중 3 때 나왔어요. 경험은 고 1 때 했어요. 알바해서 돈 생기면 술 먹고, 담배피고 밤새 놀고 그랬어요.”(정보제공자7)

2.2 가족 아닌 가족인 듯한 삶

가출한 정보제공자들은 가족이 싫어 가출은 했지만 사랑과 관심에 목 말라하며 외로움에 누군가를 찾게 되고, 혼자라는 두려움에 쉽게 이성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또한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동성친구를 찾아 같이 살기도 하는 등 서로 비슷한 친구를 만나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생활하면서 혼자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같이 나누는 가족인 듯, 가족 아닌 듯 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집도 나오고 의지할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남자친구랑 많이 붙어 있었어요.”(정보제공자1)

2.3 내면을 포함함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 보여질까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할까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버림받은 상처가 남아있어 항상 타인을 의심하며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근심, 걱정을 하였다. 내가 싫은 표정을 하면 나에게서 또 떠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며, 무조건 참으며 살아갔다. 반면 나약한 나를 드러내기 두려워 더욱 짙은 화장, 화려한 옷차림, 거친 말투와 욕설로 자신이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더욱 깊은 수렁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누가 나를 쳐다만 봐도 욕을 하고 그랬다가 우울증이 있으면 커튼 쳐 놓고 방문 닫아놓고 계속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술 없으면 못살았어요. 자살하려고 술에다 약 타먹기도 하고, 손목을 칼로 긁기도 해 보고 별짓 다했어요.” (정보제공자5)

2.4 비행을 일삼음

가출한 정보제공자들은 일찍부터 흡연과 음주, 유흥 등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생활비가 부족하면 비행, 절도, 불법을 쉽게 하게 되어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분실폰 갖다 팔고 그리고 살았었거든요, 대포통장 만들어서 팔라고 하고, 친구들과 차 훔치는데 따라가서 같이 훔치고 그랬어요. 임신 전에는 밤낮 없이 노는 것 좋아하고...” (정보제공자1)

2.5 가족과의 단절

가출한 정보제공자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살기도 하지만 가족의 무관심으로 찾지도 않았다.

“가출한 뒤 엄마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했어요.” (정보제공자1)

“재혼한 엄마가 보고 싶어 찾아갔지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거절당했어요.” (정보제공자4)

3. 당혹스러운 임신사실

임신사실의 주제모음은 ‘이른 성관계’, ‘부정확한 피임지식’, ‘임신 사실에 대한 충격’, ‘숨김과 드러냄의 교차점’, ‘미혼부의 학대’, ‘낙태유혹’, ‘망가져 가는 몸과 마음’,의 주제로 확인되었다.

3.1 이른 성관계

가족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정보제공자들은 음주와 유흥을 가까이 하여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문화에 접하게 되어 성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린나이에 사촌오빠에게, 직장직원에게 성 폭행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좀 사귀고 서로 맘이 맞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서로 관계를 해요. 요즘은 선 섹스, 후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제공자1)

3.2 부정확한 피임지식

정보제공자들은 이른 나이에 성관계는 하지만 피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임지식의 부족, 부정확한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임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이성친구들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보제공자들이 피임을 요구해도 이성친구들은 피임을 성적쾌락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피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들은 임신 후 피임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죠. 귀찮으니까. 그리고 관계를 피임 없이 많이 했어도 임신이 안 됐으니 당연히 생각했죠.” (정보제공자3)

3.3 임신 사실에 대한 충격

정보제공자들은 이성친구와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지만 임신할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사실에 두려움과, 불안감과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며, 공포감까지 느끼기도 하였다. 생리적 변화에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같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걱정은 하지만 ‘임신이 아닐 거야’ 라는 강한 부

정과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신테스트결과 양성인 나왔지만 '내가 산 검사지가 싹 것이라 결과가 잘못 나왔을 거야'라 강하게 부정하며 여러 번 검사하면서 결과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많은 정보제공자들은 대체로 5-6개월 늦게 임신사실을 알게 되거나 사실을 알았다 해도 걱정만 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막달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싹 거라서 이상한 건가? 그래서 비싼 것 사서 다시 검사했어요. 두렵고 무서움이 극에 달했어요.”(정보제공자4)

3.4 숨김과 드러냄의 교차점

태아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정보제공자들은 임신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과 번뇌를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태동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나타나는 증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자신을 키워주는 분들이 갖게 될 실망감', '자신에 대한 수치감, 임신사실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불안과 걱정',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알바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주변사람들의 비난이 무섭고', '헤어진 이성 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 앞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며,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신체적 변화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큰아버지가 주를 키워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실망하실 것 같고 염치가 없어 말씀을 못 드렸어요.”(정보제공자4)

3.5 비혼부의 학대

축복과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이 정보제공자들에게는 멸시와 천시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비혼모의 임신기간 중 비혼부와 사별한 경우도 있지만 동거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된 비혼부들은 말로는 '책임지겠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사귀고, 비혼부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임신부로서 섭취해야 할 최소한의 영양보충과 돌봄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점점 구타가 심해지거나,

키울 능력이 없다며 도망가는 비혼부들도 있었다. 헤어진 뒤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비혼부에게 알렸을 때 '내 아이가 맞느냐?'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동과 말을 듣기도 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비혼부의 배신과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심한 분노를 경험하였다.

“전에도 간간이 때렸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더 심하게 때리고 여자 친구와 술 먹는다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쌀 살돈도 없어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을 사준적도 있어요.”(정보제공자1)

3.6 낙태유혹

임신사실을 알게 된 가족, 친구, 비혼부들은 낙태를 권유하였으며 정보제공자 자신까지도 낙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안정된 직장도 없어 '자신 혼자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결혼도 하지 안 했는데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감수해야 하나', 온 세상이 질투 같아 막막한 심정이라 낙태와 출산 후 입양을 보낼 것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 세상이 검은색으로 변한 것 같고 낙태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정보제공자4)

3.7 점점 변해가는 몸

많은 정보제공자들은 임신으로 오는 힘든 증상과, 일을 할 수 없어 점점 궁핍해지는 생활고, 비혼부와 친척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갔다. 임신 전에도 정보제공자들은 탈모와 생리불순 등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여 임신을 생리불순으로 생각하여 5-6개월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정보제공자들 대부분은 비혼모센터 입소 전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산전 진찰을 받아보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랑 살 때는 생리를 했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생리불순이 점점 심해져 반년씩 하지 않아 그래서 임신인줄 도 몰랐어요.”(정보제공자7)

4. 힘들게 결정한 출산

출산결정의 주제모음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기’,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 ‘낙태시기를 놓침’, 의 주제로 확인되었다.

4.1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기

임신사실에 처음엔 충격과 당혹감을 가지던 정보제공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뱃속의 태아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갖게 되었다. 가족은 결혼 안한 딸이 임신했다는 낙인이 두려워, 낙태를 종용했지만 정작 정보제공자 자신은 아기 태동을 느끼면서 새롭고 신기한 기분과, 태아의 심장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며, 뱃속의 아이에게 더욱 강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초음파를 통해 선명하게 비치는 태아의 모습을 보면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때나마 낙태를 생각한 자신을 후회하고 태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솔직히 중절을 할 수는 있었는데 차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때 손발을 다 봤어요. 초음파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정보제공자6)

4.2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

정보제공자들은 부모 없이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던 기억, 나를 버리고 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원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 아이에게 또 다시 반복되는 굴레를 주면 안 되겠지,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못 했지만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미혼부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지 하면서, 떳떳한 엄마가 되어가기 위한 주문을 암송하듯 출산을 결심한다.

“제가 아이를 버리면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나를 버린 엄마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정보제공자6)

4.3 낙태시기를 놓침

임신사실을 늦게 알게 된 정보제공자들은 병원의 거부로 시술을 할 수 없거나, 낙태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았지만 낙태시기를 놓쳐, 또한 비혼 여성인 자신이 임신한 사실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병원 진찰조차 두렵고 무서워 가지 못했거나, 망신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누구와 상의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하고 결정하지 못해 시간만 보내 막달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한 것을 늦게 알았어요. 아마 5개월 6개월쯤 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정보제공자6)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혼모가 되기 전 삶의 경험을 밝히고 이해함으로써 비혼모 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비혼모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0명의 비혼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모의 성장 배경을 보면, 비혼모들은 부모가 사별하였거나,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등 가족 구조적 결손을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어머니의 재혼으로 조모나 친척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와 이혼하여 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비혼모에게 폭행과 폭언 등 학대를 경험하였다. 어린 시절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핍으로 이러한 경험은 놀랍고 당황스러우며 불안감과 외로움 등 정서적, 정신적 불안정,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즉 가족 구조적, 기능적 결핍은 비혼모 발생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혼모의 80%의 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 상태로 가족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었으며, 가족기능 파괴는 학업중단과 청소년기 가출로 이어져 정보제공자의 50%가 가출을 경험하였다. 윤미현과 이재연[24]의 연구에서는 양부모와 사는 정상 가정출신 비혼모가 71.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이후로 경제위기로 많은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 전환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족기능상실과 가족해체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가출은 각종 흡연, 음주 약물중독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절도, 비행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서보람, 김윤나[2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가정 문제로 야기된 청소년문제가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피임과 관련하여 가족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비혼모들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문화에 접하게 되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하지만 부정확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혼부와 성관계시 불규칙적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정확하게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피임지식이 부족하였다. 특히 비혼부는 대부분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임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 46%가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약 54%가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을 시도했거나 올바르게 못한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손명세[27] 연구에 의하면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경구피임약의 경우 매일 복용하는 어려움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콘돔사용은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콘돔을 구입하기가 창피해서” 등의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학생의 성 지식, 성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개별교육과 여학생과 남학생의 맞춤형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개방적인 성문화와 빨라지는 성경험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성교육과 피임방법교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비혼부의 관계를 보면, 임신 중 비혼부와 결별과 사별한 경우도 있지만, 동거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비혼부의 책임회피로 비혼모를 버리고 떠나거나 비혼모를 학대하기도 하였다. 많은 비혼모들은 비혼부와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임신사실조차 비혼부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사실을 알렸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혼부의 책임회피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였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비혼모들은 원치 않은 임신사실에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 공포감, ‘임신이 아닐 거야’라는 강한 부정성을 하며 낙태도 생각하지만 태아의 심장소리를 듣고 생명의 존엄성으로 차마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을 결심하였다. 임신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낙태시기가 지나 출산하거나,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낙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사실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누구와 상의도 못하고 병원 진찰조차 하지 못하고 걱정만하다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비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의료전문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본 연구에서 비혼모의 발생요인은 첫째, 가족의 기능 상실과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다. 가족기능 파괴는 학업중단의 요인이 되었으며, 학업중단은 청소년 가출로 이어졌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 가출생활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혼모의 생활환경이 성문화에 접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임에 관련된 지식과 정확한 피임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초기 임신의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임신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임방법적용은 대부분 비혼모들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비혼부들은 피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혼모의 임신사실 후 대부분의 비혼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비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모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청소년의 성인식과 성태도를 고려하여 남학생을 대상으로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남, 여 모든 청소년에게 여성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여성의 생리, 임신과 관련된 여성생식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준비된 출산의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기능의 파괴는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의 학업 중단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위기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심리치료나 가족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통하여 비혼모의 발생요인을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비혼모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보제공자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지만 임신 중 비혼모와 입양을 선택한 비혼모가 포함되지 않아 집단의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참고 문헌

- [1] 이미정,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자녀양육)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2] 김영신,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5권, 제1호, pp.27-58, 2011.
- [3] 여성가족부,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4] 통계청, *연령별 미혼모, 미혼모자녀*, 2017.
- [5] B. J. Stoll, *High-risk pregnancies. In: Kliegman RM, Behrman RE, Jenson HB, Stanton BF, editors.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 Philadelphia: Saunders, 2007.
- [6] T. Crosier, P. Butterworth, and B. Rodgers,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ingle and partnered mothers,” *The role of financial hardship and social support*, Vol.42, No.1, pp.6-13, 2007. PMID: 17203237 DOI: 10.1007/s00127-006-0125-4
- [7] C. Campbell-Grossman, D. B. Hudson, K. A. Kupzyk, S. E. Brown, K. M. Hanna, and B. C. Yates, “Low-Income, African American, Adolescent Mothers’ Depressive Symptoms,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J Child Fam Stud*. Vol.25, No.7, pp.2306-2314, 2016. PMID: 28413312 PMCID: PMC5389114 DOI: 10.1007/s10826-016-0386-9
- [8] M. Scharte and G. Bolte, “Children of single mothers: health risks and environmental stress,” *Gesundheitswesen (Bundesverband der Ärzte des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es (Germany))*, Vol.74, No.3, pp.123-131, 2012. PMID: 21267816 DOI: 10.1055/s-0030-1270507
- [9] 배영미,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가정·사회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논총*, 제10권, pp.51-80, 2001.
- [10] 최종선, *미혼모 발생요인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1]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8, No.3, pp.27-37, 1986. PMID: 3083765
- [12]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13] 장화숙,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4] 최영아, *싱글맘의 평생학습적 요구와 정책*,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5] 통계청,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5.
- [16]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17] 윤미현, 이재연,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49-169, 2002.
- [18] 정은연, *미혼모되기, 모성경험, 미혼모로 살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9] 석지효,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의 미혼모 보호법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0] 송광수,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1] 이은주, 최규련, “시설미혼모의 양육/입양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

- 권, 제2호, pp.247-260, 2014.
- [22] 양민옥,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혼양육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23] 성정현, 김현주,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pp.33-58, 2016.
- [24] 윤미현, 이재연,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 제23권, 제3호, pp.149-169, 2002.
- [25] 서보람, 김윤나, “가출팸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9-30, 2013.
- [26] John S. Santelli, Brian Morrow, John E. Anderson, and Laura Duberstein Lindberg,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risk among US high school students, 1991-2003,”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38, No.2, pp.106-111, 2006.
- [27] 손명세,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부, 2011.
- [28]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 임신과 출산, 보육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404-418, 2016.

저 자 소 개

이 정 실(Jeoung-Sil Lee)

정회원



- 2017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미혼모